

# 부산 신항 3차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선정 입찰

## 네덜란드 스테인웨그 등 외국기업들 참여 예상

10월23일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되는 부산 신항 3차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선정 입찰에 세계 유수의 해운·물류업체들이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네덜란드 스테인웨그의 아시아본사 대표는 지난 10월9일 국내 컨소시엄 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 최현기 사장과 함께 부산항만공사(BPA)를 방문, 신항 배후물류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원자재 물류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투자의향을 밝힌 뒤 신항 일대를 견학했다.

스테인웨그는 아시아지역 20여개의 지사를 포함, 전세계에 40여개 지사 및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만 연간 1,200만톤의 화물을 취급하고 연간 매출액이 27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 최대 선사인 NYK는 국내 파트너사인 KCTC와 지난 8월 BPA와 신항 배후물류부지를 방문해 강력한 입주의지를 표명하며 BPA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수시로 물류부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또 중국 최대 해운업체인 코스코의 자회사인 코스코로지스틱스도 최근 국내 물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할 뜻을 BPA에 밝혀 왔다. 홍콩 선사 OOCL의 계열사인 OOCL로지스틱스와 일본 MOL, 미쓰이물산 등도 국내 업체들과 합작해 신항 배후물류부지 3차 입찰에 뛰어든 태세다.

10만8,300여평 규모의 3차 배후물류부지는 임대료가 m<sup>2</sup>당 월 40원으로 중국 상하이항의 10분

의 1 수준이어서 외국업체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반면, BPA는 컨소시엄·업체별 임대면적을 1만평으로 제한해 11개 정도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3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 개장한 부산 신항 및 배후물류단지와의 인근 녹산산단을 연결하는 물류수송 교량으로 공사중 붕괴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완공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던 견마교 건설공사가 신항 3차 선석의 추가개장 전인 오는 12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에 발주해 지난 4월초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견마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교각을 지탱하는 지름 1.5m의 강관·콘크리트 말뚝들이 수식선상에서 20~30cm 가량 밀려나는 등 수평변위가 심해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배후물류단지쪽 연약지반의 호안이 공정률 85%인 견마교의 하중에 짓눌리면서 수평압력을 발생시켜 깊이가 40m나 되는 뺨층 위에 설치된 교각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견마교는 현 상태에서 상부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연직하중에는 안전하지만, 주변 구조물에서 생기는 수평압력에는 크게 취약해 말뚝과 교각의 수평변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해양부는 조만간 견마교 주변 호안에 완충영역을 확보하는 등 수평압력을 막을 수 있는 보강공법으로 지난 4월초 중단된 공사를 재개해 오는 12월말 이전에 다리를 완공·개통하기로 했다.